



連載〔4〕

## 잃어버린 古代都市

### Ⅳ. 人間の想像力은 무엇을 만들 었을까?

인간의 文化的 상상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은 상상력에 의해서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상상력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물이나 말이나 몸의 움직임을 공통으로 형상화시킨 것이 文化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의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의 문화 발생 지점을 死者를 동반한 葬送儀禮의 흔적에다 두고 있다. 물론 돌을 주어 정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식으로 메운다거나, 단순한 것이기는 하나 어떠한 동물도, 아무리 인류에 가까운 유인원이나 사람과의 네안델타루 등에도 死者를 동반한 흔적은 남겨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死者를 동반한다는 것은 적어도 「死」, 그것도 자신 이외의 同類에 「死」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형태로든 이해하려고 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죽음은 오늘에 와서는 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상상력이나, 呪術이나, 종교 등에 의해 어떻게 하든 인간에게 납득이 가는 것으로서 공동생활 속에 꾸려 왔는데 이것이 곧 葬送儀禮라고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산 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류문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神話분류에 의하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死와 生殖, 식물의 발생, 이러한 것들을 一体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상하여 산출해 낸 것을 신화라고 말하고 있다. 신화는 그것이 오늘에 와서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보다 인간이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풀 수 없는 어떤 관계를 통일한 것으로서 납득하려고 하는 이해와 노력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만 한다면 자신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자신이 사라져 소멸하는 작은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것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 둘을 포함한 관계가 실은 「세계」=「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의 의미에서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상력이 만들어 낸 완전한 세계의 이미지에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고, 모이며, 즐거워하고, 슬퍼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여러가지 의식과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이 실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起源인 것이다. (\* )